

“더 싼 이자 찾아 떠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

오늘부터 광주은행 등 21곳서... 기존대출 3개월 이후 가능 전세대출 중 120조 갈아타기 대상... 하반기부터 기간 확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광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전북, 경남, 제

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이다.

신진장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만 모두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A은행은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p, B은행은 9일부터 0.15~0.4%p 각각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대상에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8개월간 11만8773명의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했고, 총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평균 1.6%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기준 57만원의 이자절감효과, 신용점수 평균 36점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캠페인에는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과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 500만원 내에서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금액별로 10만원 이하면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전남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앞장서겠다”며 “지역민들께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 제공받은 1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재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바 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우위니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제품 사주기운동’ 행사에서 정호(왼쪽 네번째)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과 강기정(왼쪽 세번째)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제공>

해양에너지 ‘대우위니아 지역제품 사주기’ 동참

해양에너지는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우위니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제품 사주기운동’ 행사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해양에너지는 3000만원 상당의 답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지역기업인 대우위니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가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지역 내 사

회복지관 또는 돌봄시설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기부하거나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정호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빈현준 제8대 호남지방통계청장 취임



제 8대 호남지방통계청장으로 빈현준(사진) 전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이 30일 취임했다. 빈현준 신임청장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4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빈 신임청장은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산업동향과장, 통계정책과장, 고용통계과장 등 핵심 보직 분야를 두루 역임한 통계 전문가다.

빈 신임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호남지방통계청이 정확하고 신뢰받는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현장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호남·제주권 주요 정책 현안 관련 통계를 심층 분석하고 제공해 지역 통계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구호나 말이 아닌 행동하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전남도, 지역상권 이끌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청년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로컬’ 잠재력 주목

23일까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남도가 지역 고유 자원으로 골목상권 발전을 이끌 유망 업체를 육성하는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도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

책으로 ‘로컬’에 주목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사회의 가치관과 소비트렌드가 가치와 개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로컬’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고유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강릉 테라로사·보헤미안, 양양 서퍼비치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발전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주도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선박을 정비시키는 닻(앵커)처럼 상권 발전의 핵심이 될 유망 업체의 성장을 집중 지원해 지역 상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지역 구성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골목상권 페스티벌 개최 등도 지원한다.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업체를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골목상권의 핵심점포로서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삼성전자 AI 탑재 ‘갤럭시 S24 시리즈’ 31일 출시

삼성전자의 야심작,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사진)가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31일부터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31일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전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앞서 전세계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전작 대비 두 자리 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가 전체 판매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외 경우 1주일간 121만대의 사전 판매를 기

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사전 판매고를 올렸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S24 울트라’, ‘갤럭시 S24+’, ‘갤럭시 S24’ 등 3개 모델 모두 갤럭시 AI 기반의 혁신 기능을 탑재했다.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역’ 기능과 메시지 번역과 톤 변경을 제공하는 ‘채팅 어시스트’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쓰는 신기능을 선보인다. 지원 언어는 출시 시점 13개를 넘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또 구글과 협력한 ‘서클 투 서치’는 새로운 검색 방식을 보여준다.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화면에



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 갤럭시 S24 시리즈 카메라는 AI 기반의 ‘프로 비주얼 엔진’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사진, 동영상 편집 기능까지 갖췄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출 유관기관 온라인 시책 설명회

전남FTA통상진흥센터 오늘 11곳 참여... 수출기업 궁금증 해소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산하 전남 FTA통상진흥센터(이하 전남FTA센터)가 31일 오후 11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4 수출 유관기관 온라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기관은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FTA통상진흥센터 등 11곳이다.

에는 전라남도 ‘옴트전남투브’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각종 글로벌 이슈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수출(희망)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8.81(-1.84)
↓ 코스닥	818.86(-0.28)
↓ 금리(국고채 3년)	3.268(-0.036)
↓ 환율(USD)	1329.40(-6.30)